

스피드마스터 XL 106 양면인쇄기 시간당 1만8000매 인쇄... 상업·패키징 생산성 20~30% 증가 스피드마스터 XL 106-P+L은 올해 중반부터 판매 개시

하이델베르그가 드루파2012에서 소개한 스피드마스터 XL 106이 지난 한 해 동안 성공적인 판매기록을 보였다. 스피드마스터 XL 106은 양면인쇄에서 시간당 1만8000매를 인쇄할 수 있는 기기로, 연간 4천만 매 이상을 생산하는 대형 상업인쇄사에 유용한 인쇄기다. 스피드마스터 XL 106-P+L은 시간당 1만8000매의 속도로 한 번에 양면인쇄 후 코팅을 하는 인쇄기로, 올해 중반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자료 제공 | 한국하이델베르그



최고 생산성과 뛰어난 가용성으로
고객의 평가가 높음

- 스피드마스터 XL 106-P+L ; 시간 당 1만 8000매의 속도로 한번에 양면 인쇄와 코팅
- 사용자들은 다양한 기계 구성과 작업 범위를 높이 산다.
- 상업과 패키징 인쇄인들은 생산성이 20 ~ 30 퍼센트 증가했음을 확인

스피드마스터 XL 106은 70×100 cm 규격에서 매우 다양한 구성이 가능하다. 2개에서 19개까지 유닛을 확장할 수 있으며 양면기를 장착할 수도 있다. 맞춤형으로 제작하는 경우 L-P-L 구성(양면 장치 전후에 코팅 유닛)으로 할 수도 있으며, 오프셋 유닛전에 플렉스 인쇄 유닛이 있는 듀오 인쇄기, 인몰드 라벨과 같은 제품의 생산이 가능한 로터리 다이 커터로도 공급될 수 있다. L-P-L 버전의 경우 한 번에 용지의 앞면과 뒷면을 인쇄하고 코팅해, 용지가 완벽히 건조돼 배치되므로 곧바로 후가공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는 편면 인쇄기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30~40% 정도 생산성이 증가된다.

독보적인 기술과 생산성

스피드마스터 XL 106은 프리셋 기능, 컬러 프리셋팅, 오토플레이트 XL 기능으로 동시 판 교체, 프리벡 인프레스 콘트롤, 매우 쉬운 작동법이 상호 작용해 높은 생산성을 자랑한다. 때문에 작업자는 용지의 길이, 폭과 두께를 입력하면 규격과 에어 세팅을 인쇄기가 알아서 한다. 인쇄기를 처음 사용해 본 이들은 최고 속도에서도 높은 가용성과 안정적 용지 이송이 유지되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다.

편면과 양면 모드 모두에서 시간당 1만8000매로 인쇄가 가능한 스피드마스터 XL 106은 인몰드 포일에서 크래프트 보드지까지 최대

0.8mm 두께의 다양한 용지를 처리할 수 있다. 75×106cm 용지 규격에 최대 인쇄 규격은 양면인쇄에서 매엽 29.53×41.73인치, 최대 인쇄 포맷은 73×105cm로 용지 전체를 사용할 수 있어 패키징 인쇄 업체에게는 다이커팅 경계선이 더 넓어졌다.

영국·독일의 상업·패키징 인쇄사 “매우 만족”

대표적인 사용자들을 영국과 독일의 주요 인쇄사로, 영국에 위치한 스텔링 인쇄사는 상업 및 패키징 인쇄를 하는 업체로 XL 106 양면기의 생산성을 높이 샀다. 독일의 아우몰러 인쇄사는 2012년부터 스피드마스터 XL 106 8도 양면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빠른 작업 교환을 할 수 있도록 가장 짧은 작업준비 시간이 걸렸다고 평가했다. 영국의 안톤 그룹 상업인쇄사는 생산성과 친환경 인쇄를 높이 평가해 10도 양면 인쇄기 2대, 12도 양면 인쇄기 3대를 주문했다. 드루파 전시장에 설치했던 스피드마스터 XL 106, 6도 이중 코팅 인쇄기는 현재 유럽의 유명한 패키징 인쇄사인 컬러드럭 바이어스브론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원가가 크게 절감됐다고 평가했다. RLC 패키징 그룹은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유럽 전역에 패키징을 공급하는 업체로 8도 인쇄기에 코팅 유닛이 3개 있으며, 3배 길이의 배치부를 갖춘 스피드마스터 XL 106의 가동을 최근 시작했다. ↻